

29. 애오라지 정선의 삶, 김종복 할아버지의 단미콩

이번 수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출발한 여정이었다. 백내 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의 빈자리에 일상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다잡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다. 더구나 박물관이 어머니로부터 얻은 지혜였으니 어머니의 뜻도 이러했으리라 믿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정선 동곡리, 이리 깊은 골짜기까지 왜, 뭇 하러 사람들이 찾아 들어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골짜기 마을이었다. 강을 따라 20리, 그리고 다시 산을 따라 20리를 가서야 만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김종복 할아버지였다. 동곡리의 끝, 해발 670m가 훌쩍 넘는 곳이었다. 그분에게서 얻은 감미콩. 오늘은 그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감미콩 이야기다.

그가 감미콩을 처음 만난 때는 30대 초반이었다.

그는 본래 정선 여탄이 고향이었다. 그곳에 집안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가난이 가난임을 모르며 지내온 그들이었다. 지금은 세끼를 먹어야 하루가 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밥은 있을 때 먹는 줄만 알았었다고 한다. 밥은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들고 산에 나가서 찾아 먹는 줄만 알았다. 어쩌다 산속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밥 달라고 해 봐야 어머니는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서 배고픔은 늘 그들에게 있는 견딜만한, 참고 넘어갈 만한 두통 같은 아픔인 줄만 알았다.

그 아픔이 아버지로부터,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온 줄은 까맣게 몰랐다. 그가 기억하기로는 아버지는 매우 게을렀다고 한다. 그것을 안 것은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쩌다 부잣집 애들은 가방을 메었지만, 자신의 지계를 메면서부터였다. 아버지의 게으름이 자신의 게으름을 각성시켰고, 지계 다리를 끌고 죽기보다 싫은 농사일을 시작한 것은 겨우 열다섯 살이었다.

땅 한 평이 없었으니 그때부터 시작된 품팔이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땅을 가지고 싶었지만, 가질 수가 없었다. 그가 농사지을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화전뿐이었다. 화전을 하는 어른들에게 산에 불 놓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은 하천 나대지 땅에 조나 뿌리면서 힘이 붙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그나마 그가 품팔이 하면서 처음으로 곡식을 심은 것은 어른들이 가르쳐 준 대로 겨우 하천가에 나대지 땅을 얻어 조를 심은 것이었다.

내 것이라니! 내 곡식이라니. 그는 그 첫 수확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 것에 대한 기쁨을 알았으니 내 것을 만드는 일이 평생 바쳤다.

그때부터 시작한 일이었다. 하루에 세 시간은 자보지 않았다는 그였다. 일을 손에서 놔보지 않았다. 세 시간 이상을 자본 것은 늙어 몸이 고장 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처음이라 했다.

- 뭇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셨데요?

- 애 때문이지. 우리 큰애가 엄마라는 말보다 밥이라는 말을 먼저 배웠어. 이놈이 얼마나 배고픈지 눈만 뜨면 '밥', '밥' 해대지, 입만 떼면 '배고파', '배고파', 이 말을 달고 살았어. 지금도 그 목소리가 들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일터로 나가. 먹을 거라고는 콩죽도 없어 콩깍이로 연명했어.

강원도 속담에 '외할머니 콩죽에 잔뺨 굶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의 인생은 콩죽과 콩깍이로 시작되었다. 콩죽은 들어봤지만, 콩깍이는 들어보지 못해 신기해하며 여러 말을 물어보는데 막내아들이 불쑥 나왔다. 아마 방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 하이고, 우리 아버지 원풀이 하시네.

방에 들어가 있던 막내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모처럼 아버지 인생을 한없이 푸는 모습이 찡했던지 아버지를 위로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마련한 곳이 바로 이곳, 동곡이었다. 그가 어른들로부터 화전을 배운 것은 허벅지에 제법 살이 붙어난 군을 제대하고 난 뒤였다. 그는 겁 없이 곧장 3,000여 평의 산에 불을 질렀다. 그에게 농사지을 땅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얻은 화전 땅에 조와 메밀, 콩을 심으면서 배는 고프지 않았다고 한다.

- 언제부터 감미콩은 심기 시작했나요?

사실은 내가 평창에 약속이 있어서 여느 때와는 달리 조금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참으로 할 말이 많았다. 그 시절, 그때 사람들이 모두 배고팠고 가난했다는 말로는 위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아무리 먹고살게 없어도 천재 아이를 둔 부모는 가르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는 자식이 천재임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땅도 팔았고, 번 돈은 모조리 부인과 함께 서울로 올려보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지 못했다. 그분은 스스로 IQ가 150이 넘는다고 자신했다.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한문을 스승 없이 1년 만에 물리를 터득했고, 지금까지 한문으로 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방에 들어가 주섬주섬 내 오더니 평생 써 온 한문 일기장을 펼쳐 보였다. 시작할 때는 하루에 네 시간을 자려고 맘먹었지만, 한 시간을 줄여 한문 공부를 했으니 세 시간밖에는 자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아들 이야기에, 당신 이야기에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생각이 났는지 다시 감미콩 이야기를 했다. 돌아온 것이 다행이었지만, r의 삶에서 그것을 빼버리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어 나도 따라서 기록한다.

-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여탄에서 이리로 이사 오면서 얻은 콩이니까 50년은 넘지 않았을까? 지금 내 나이가 일흔일곱이니까”

그가 화전을 시작하고 식량은 물론 약간의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약초를 심으면서 돈이 생기자 73년도에 동곡에 자신의 첫 땅을 구했다.

그가 자신의 땅을 구하고 그 땅에 콩을 심기 위해 수확량이 많다는 콩을 종자로 쓰기 위해 덕송 사람에게서 비싸게 샀다. 그러나 막상 콩이 들어오고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콩이 섞여 있는 잡콩이었다. 덕송 사람이 그에게 속여서 판 콩은 마을에서 나는 콩으로 이 콩 저 콩 닦치는 대로 모아 종자로 속여 비싼 값으로 판 것이었다. 화를 내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콩은 다 같은 콩이라는 게 그의 변명이었다. 덧붙이길 콩죽 맛은 기가 막힌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또 속는 셈 치고 이왕 자식들에게 콩죽으로 먹일 바에야 먹을 것이라든 맛있는 콩을 심어보자는 심사였다. 그런데 콩이 섞여 있으니 어느 콩이 맛이 있는지 몰라 하는 수 없이 콩을 선별하기 시작했다. 크게는 모두 세 종류였다. 그렇게 선별한 콩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출신 사람들에게 콩죽을 쑤어 맛을 선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콩죽 맛이 기가 막힌 콩을 하나로 가리켰다. 눈까지 까매서 시장성이 전혀 없는 콩으로 쑨 콩죽이었다.

이렇게 달콤한 콩죽은 처음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죽을 쑤어 아이들에게 내놔다. 처음에는 또 콩죽이냐며 주뺏대며 조금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허겁지겁 한 그릇을 톡톡 비웠다.

그는 콩을 판 덕송 사람에게 콩 이름을 몰라 물었더니 덕송에서 오랫동안 심어온 콩으로 메

주를 쑤는 콩인데, 그냥 잔콩으로 불릴 뿐 그도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맛이 달다'라는 뜻으로 감미콩이라 이름을 붙여 심기 시작했다. 감미콩은 그가 붙여준 이름이었다. 그가 한문 배운 턱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그는 감미콩을 처음 만났다.

그는 작년에는 서리가 일찍 와서 '투데기'를 많이 써서 콩이 실하지 않다며 감미콩을 내놨다. 아닌 게 아니라 마치 나물콩처럼 작았다.

- 나물콩 아닌가요?

- 아니오, 장콩이오. 나와 한평생을 함께하며 메주 쑤고 콩죽, 콩깅이를 해 먹는 콩이라오.

눈이 까맣게 점을 찍고 있었다. 마치 눈까메기 콩인 듯 착각할 뻔했지만, 또 눈까메기 콩과는 달랐다. 덕송에서 대대로 내려오다가 대부분 없어지고, 한때는 동곡리 마을 전체가 감미콩을 심었지만, 동곡리에서도 메주를 쑤는 집이 줄어들면서 마을에서는 이 집 말고는 수집할 수 없었다.

그렇게 우연히 찾아낸 콩에 이름을 붙이고 심어오길 50여 년, 그는 한 번도 종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만족했다.

이야기가 끝나 갈 무렵, 부엌에 들어갔던 아들이 웬 상을 하나 들고나와 내 앞에 놓았다.

- 콩깅이라요.

그는 아버지가 풀어놓은 인생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으면서 찐했는지 부엌으로 들어가 콩깅이를 끓여서 내 온 것이었다. 콩깅이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 그리고 물 한잔이 다였지만, 나는 순식간에 콩깅이에 들어있는 그분의 삶을 맛볼 수 있었다. 간 콩과 쌀, 그리고 백김치가 다였던 단순한 콩깅이와 그의 단순한 농부의 삶이 겹쳐왔다.

그날은 김종복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날 평창의 약속은 늦을 수밖에 없었다.